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 사회 동향

좋은벗들 사무국장 이승용

1. 화폐 교환 조치와 사회 동향

(1) 화폐교환 조치

1) 대외용 목적

- ①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맞기 위한 물질적 기본을 담보하자는 것(사실은 현금 수입 확충이 목적)
- ②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것(사실은 사회주의 경제구조 복귀가 목적)

- 2) 배경 : 현 북한 경제는 개인과 국영기업들의 돈이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
→ 국가의 빈약한 재정상태 → 개선 필요

3) 교환 방법 : 구 화폐 10만원 → 새 화폐 1,000원

4) 사회 혼란상

- ① 시장 운영 중단되어 식량과 생필품 구입 차질 → 물가 평균 2~3배 폭등
- ② 국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로 수입 중단, 시장 폐쇄조치로 물품 부족해져 물가 10배 이상 폭등

5) 주민들의 반응

- ① 시장에서 장사로 어렵게 돈을 번 세대들은 경악, 정신적 충격이 커서 자살하는 사람 생김
- ② 장사하기조차 힘들었던 농민들은 1인당 15,000원 배당금 공급에 기뻐함.
- ③ 1개월 후 배급과 물품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서 물가 폭등하자 정부 정책 불신 급격히 고조
- ④ 2010년 1월 중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 발생하면서 주민 불만 고조
 - 함경남도 단천시, 70-80대 전쟁로병들 시당에 몰려가 “식량 달라” 집단 항의

(2) 시장 상황

- 1) 12월 9일 배급가격이 1차로 공시됐으나 여론 수렴을 거쳐 재조정함
- 2)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망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물품 공급 이뤄지지 않음
- 3) 1월 14일부터 종합시장 폐쇄, 즉 농민시장 전환을 시도하자, 물가 최고 10배, 쌀값 최고 20배, 달러 10배, 위안화 15배 이상 폭등
- 4) 돈주들이 화폐교환조치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중국 대방과의 무역거래에 큰 지장 → 돈이 없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해, 시장에 물품이 부족하게 됨
- 5) 물가폭등에 장사 밀천 떨어져 장사 중단하고, 물가 폭등으로 물건 사는 주민들이 없어 시장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음
- 6) 중앙당, 식량부족 문제로 아사자 속출하자 1/31일부터 시장 임시 허용하기 시작

(3) 화폐 교환 조치의 내부 평가 및 전망

1) 내부 평가

- ① 북한 당국, 주민들 불만 고조되자,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의 잘못으로 인민들이 고통당한다며 개인 간부들에 책임 전가
 - ② 김영일 내각 총리와 박남기 경제정책부장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인민반장이상이 참여한 평양 내각 총회에서 화폐 교환 조치 관련 사과 발언
- 가. 사회혼란 책임인정한 후 “3개월만 기다려달라. 이제 쌀이 풀린다. 좀 더 참아달라” 고 요청
- 나. 지방당 일군들의 반발 및 인민들의 동요 심각
- 첫째, 정말 준비성 있는 조치였는가?
- 둘째, 배급은 가능한가?

2) **전망** : 내부 당일군들은 “남은 것은 중국과의 전면합작으로 가는 길 뿐” 이라고 생각

① 경제문제

- 가. 화폐개혁으로 시장의 주역들을 다 몰락시킴. 시장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
- 나. 일부 돈주들이나 외화사용자들이 구속됐다가 풀려났어도 재산이 다 없어진 마당이라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은 이상, 자력으로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② 사상문제

- 가.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간 것 같음. 지금까지는 모든 고난의 책임을 외부에 돌렸는데, 이번엔 명백히 중앙당의 책임이기 때문.
- 나. 주민과 중간간부들은 고난의 행군 때만해도 당은 잘 하려고 했는데 외부조건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고 인식한 반면, 지금은 개인이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당에서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 이제는 체제가 문제라는 인식이 싹 틔.

③ 정치문제 : 내부 혼란 막는다는 명분으로, 2/8일 인민보안성연합성명서 발표 후 통제 더 강화될 것

2. 화폐 교환 이후 식량 상황

1) 식량 상황 및 아사자 발생

- ① 전반적으로 배급이 없는 상태에서 식량 부족 심각
- ② 화폐교환 조치 후 시장이 중단되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 중에 굶어죽는 사례 발생 → 1월 중순 이후 식량 부족으로 전역에서 아사자 발생 증가
- ③ 당중앙경제정책검열부, 1월 초부터 26일까지 주민 실태 조사 실시
 - 가. 굶어죽기 직전이라는 내용의 직보가 전국적으로 약 5,660여건. 이 중 굶어죽었다는 보고가 2,000건 이상.
 - 나. 2008년 춘궁기때 농민들이 많이 죽었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농민들보다 주로 장사에 의존하던 도시 노동자들이 식량난 고통 심함. 아사자도 주로 도시 노동자 가족들에서 발생
- ④ 2/20일 평안남도 순천 > 덕천 > 평성 순으로 아사자 한 달 새 수천 명 발생
- ⑤ 신의주 아사자 발생 300여 세대, 아사위기 1,000여 세대

2) 당국의 시장 강경정책 유보 이유

- ① 화폐교환조치(11/30), 국내 외화사용금지 포고문(12/28), 무역회사 통폐합 조치 발표(1/9), 농민시장 전격 전환발표(1/14) 등 북한 당국은 일련의 시장 강경정책을 펴왔음.
- ② 전국적으로 아사자 발생 후 먹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③ 시장에 쌀이 없으면 며칠 못 가 민심이 흉흉해지므로, 지방당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중앙당의 허락이 없다고 해도 지방당에

서는 단속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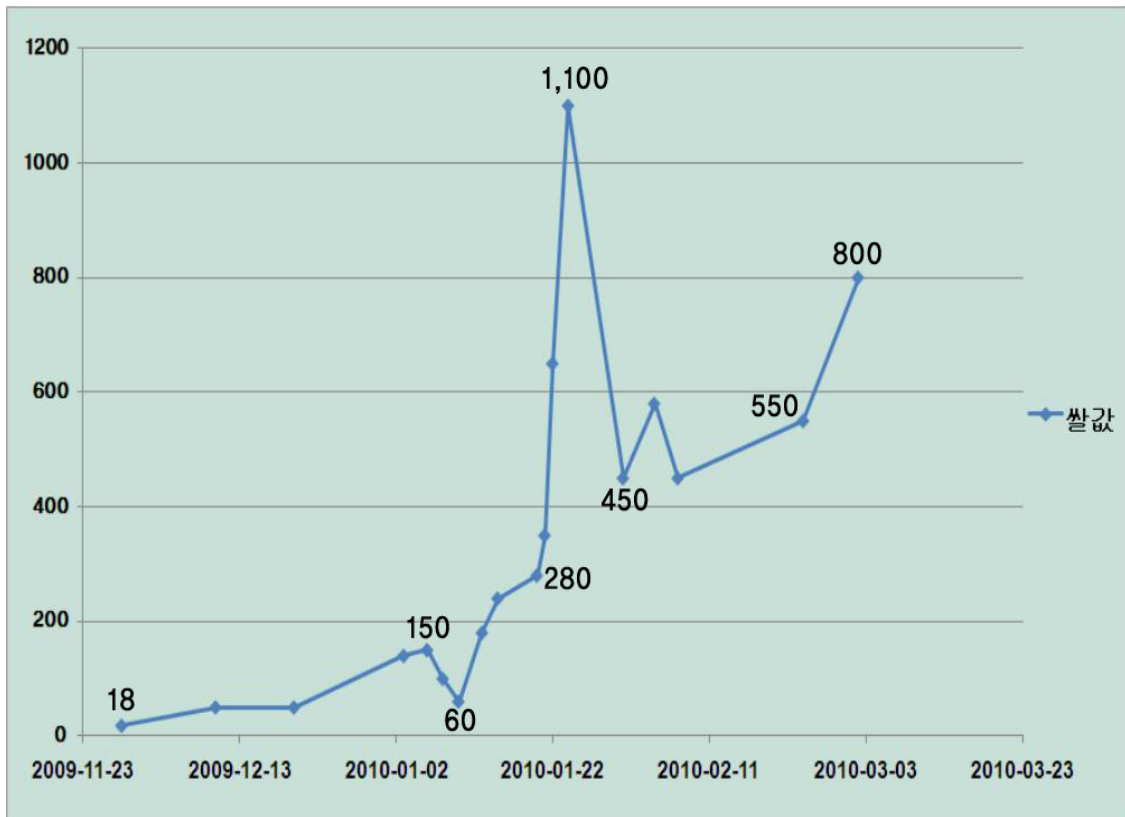
- ④ 2010년 1월 26일, 당중앙 경제정책검열부에서 주민 생활 실태조사 결과가 중앙당에 보고됨
- ⑤ 급기야 1/31일, 내각 총리가 인민반장 이상이 모인 인민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하기에 이름.

3) 화폐교환 조치 이후 물가 변동

- ① 첫 번째 쌀값 상승 원인 : 화폐교환 조치로 3배 상승 (18원 → 50원)
- ② 두 번째 상승 원인 : 12/28일 보안성 국내 외화사용금지 포고 이후 쌀값 급등(1/3일 140원)
- ③ 세 번째 상승 원인 : 당국의 강경단속으로 1/10일까지 하락세 보이다가, 1/14일 농민시장 전환 발표하면서 물가 다시 상승. 농민시장 전환 직후 15일 240원, 시장 단속이 더 강화되면서 280원, 350원, 650원 등 오르다가 최고 1,100원대까지 폭등.
- ④ 쌀값 400원대로 하락 : 1/31일부터 시장이 다시 허용되면서 쌀값 급격히 하락 시작. 1,100원대에서 1/31일 450원으로 하락.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대체로 400원대 유지.
- ⑤ 3월 다시 800원대로 상승 : 식량의 절대량 부족 및 가격 불안정으로 상거래 위축되어 식량 가격 다시 상승 국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래프 1〉 화폐교환 조치 이후 함경북도 청진 쌀 가격 변동 그래프

(단위: 북한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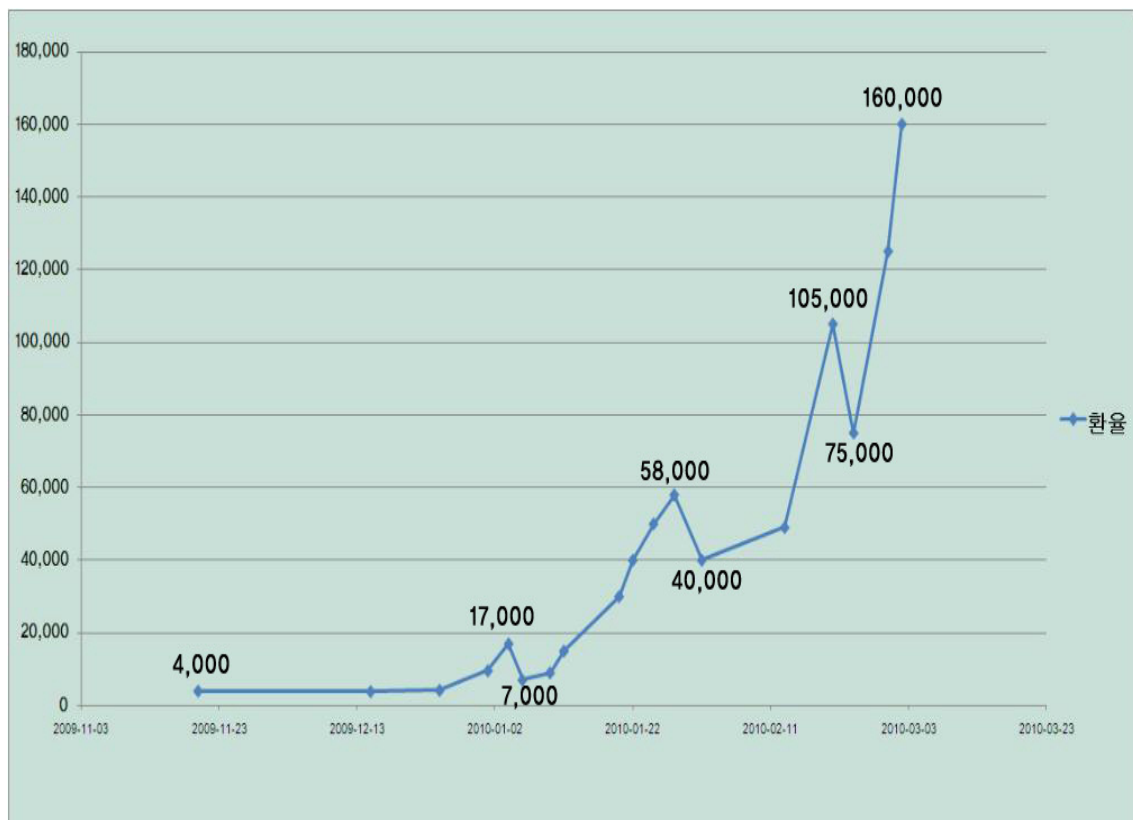


4) 화폐교환 조치 이후 외환가격 변동

- ① 12/28일 인민보안성, 국내 외화거래 금지 포고문 발표 전까지 4,000원대 유지
- ② 포고문 발표 후 7,000원(12/31), 9,560원(1/1), 17,000원(1/4) 등으로 급상승
- ③ 1/6일부터 외화거래 사용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7,000원으로 떨어짐.
- ④ 1/14일부터 농민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시장단속에 따라 외화 다시 급상승. 30,000원(1/20), 40,000원(22일), 50,000원(25일), 58,000(26일) 등 계속 급상승세.
- ⑤ 1월 31일 시장 허용되면서 40,000원대로 일시 하락세
- ⑥ 그러나 계속되는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사회혼란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북한 돈으로 거래하지 않고, 외화로만 거래. 북한 돈에 대한 신용도 급락하면서 외화 다시 급상승.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일에 최고 105,000원까지 폭등하다가 24일 82,000원으로 하락, 28일 125,000원에서 3월 2일 160,000원으로 다시 최고가 경신.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한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

〈그래프2〉 화폐 개혁 이후 신의주 외화 가격 변동

(단위: 북한 원 / 100달러)



3. 신종 독감 발생

(1) 발생과 확산

- ① 신의주 최초 발생, 11월 어린이, 청년 포함 약 40명 사망
- ② 12월 이후 평양, 평성, 함남 홍원, 명천, 평남 순천, 황북 사리원 등 나라 전반적으로 확산
- ③ 좋은벗들 12/3일자, 신의주 신종독감 발생 사실 첫 공개 → 12/7일, 전국 신종독감 확산 보도.
- ④ 좋은벗들 소식을 남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외부에 공개되자, 신종독감 발생사실 발표
- ⑤ 주민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전염병에는 신경을 못 쓰는 상황

(2) 당국의 대처

- ① 신종독감예방대책마련 전원회의 : 외부에 알려진 후 의료부문과 교육 일군들 공개 확대회의 실시
- ② 교육성 - 12월 4일부터 전국 학교에 방학령 지시 (평년보다 1개월 빠름)
- ③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긴급대상 11호로 명명
- ④ 전국 교화소 수감자 가족 면회 금지

4. 인권 상황

(1) 국경연선지역 단속 강화

- 1) 주민등록처, 보안성에서 보위부로 이관 → 간부 임용 시 가족 중에 탈북자 있을 경우 탈락
- 2) 2월 집중 숙박 검열 : 한밤중 기습 점검, 무단숙박자 처벌, 손전화기 사용자 처벌

(2) 국경연선지역 단속 강화 배경

- 1)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식량난과 사상동요로 탈북자 발생 가능성 경계
- 2) 간첩경계령 : 외부 정보 유출 단속
→ 김정일 와병설, 김정은 후계자설, 화폐 교환 조치 관련 소식 등 북한 내부 관련 소식들이 외부에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간첩행위에 극도의 경계심 표출

(3) 해외주재원 단속: 주재원들의 5세 이상 16세 미만 자녀들을 입국시키라는 조치 내림